



재난사고에 대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간 의제 비교

〈KBS〉와 〈채널A〉의 세월호 보도 키워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Comparison of the Disaster Accidents Agendas by Public and Commercial Broadcasting*

Using Sewol Ferry News's Keywords and Network Analysis on *KBS* and *Channel A*

Wansoo Lee**

(Professor, College of Media Contents, Dongseo University)

Myung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Sewol disaster agendas composed by KBS, the primary channel for disaster broadcasting, and by Channel A, a commercial channel, based on keywords and network agenda setting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n addition,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network priming,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attribute agendas set for four actor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Marine Police, the President, the captain, and Byung-eon Yoo). In terms of keyword agenda setting, KBS focused on the agenda related to accident management and victim rescue (keywords such as search, accident, and rescue). On the other hand, Channel A focused on the agenda related to a specific religious sect (keywords such as Yoo Byung-eon, salvation, the bodies of the victims, and missing persons). In the case of network framing, KBS connected the agendas centered on keywords such as rescue, time, missing persons, accident, search, and diving. Channel A, on the other hand, divided the agendas into three groups. Group one was about disaster, search, and rescue with the Sewol ferry as the focal point. Group two was about the Prosecutor's Office, the Salvation sect, Cheonghaejin Shipping with Yoo Byung-eon as its focal point. Group three was about missing persons, Park Geun-hye, the bereaved family, and tears with a focus on the families. Lastly, in terms of network priming, KBS and Channel A primed similar keywords for the maritime police and the captain, whereas the two channels did attribute priming differentially for the President and Yoo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DSU-20220003).

** wansoo1960@gmail.com, First Author

*** jhmi0410@nsu.ac.kr, Corresponding Author

Byung-eon. For the maritime police, both channels primed it as the critical player in passenger rescue and investigation operations. For the captain, both channels primed the captain as the target of accusation that he abandoned his passengers and fled. Regarding the President, KBS primed her as the agent in charge of ensuring the comfort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Channel A primed her as the one who should offer an apolog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ewol ferry accident. Regarding Yoo Byung-eon, KBS primed him a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whereas Channel A primed not only Yoo Byung-eon but also his family and religious groups a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research on agenda setting for disaster accidents using keyword and network analyse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reports from public broadcasting(KBS) and commercial broadcasting media(Channel A).

Keywords: broadcasting media, Sewol ferry accident report, keyword agenda setting, network agenda setting, network priming

1. 서론

재난사고는 방송 매체가 주목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속한다. 사람들은 주로 방송뉴스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방송은 재난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자극적 영상(Anzur, 2000)과 함께 보도, 평가,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다양한 언어를 통해 재난사고를 묘사하고 진단한다(McKee, 2014). 방송은 보도 언어를 통해 사고현실을 구성하고, 의미체계를 제시하며, 나아가 사고의 책임주체를 현저하게 드러낸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의제 구성 방식은 방송 매체에 따라 다르다. 방송뉴스 의제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지상파 공영방송과 상업성을 강조하는 민간 종합편성채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기묵·김광재, 2014; 유수정, 2018; Lischka, 2016; Tanaka, 2012). 공영방송은 다른 일반 방송채널과 달리 사회적 공익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다. KBS가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되어 공익적 기능을 보다 많이 수행하도록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반해 종합편성채널은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사회 문제를 더 선정적이고, 더 흥미 중심으로 다룬다(박기묵·김광재, 2014). 따라서 방송채널의 소유방식에 따라 같은 사회적 재난사고가 어떻게 다르게 의제화 되는지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방송의 보도체계를 입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에 속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많은 방송채널 가운데 공영방송사인 <KBS>와 민영 상업방송사인 <채널A>가 보도한 세월호 재난사고 내용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들 두 방송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KBS>는 공영방송사이자,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채널A>는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동아일보>에서 경영하는 종합편성채널로써 세월호 사고 뉴스시간이 국내 모든 방송 채널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보도방식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었다(권상화·신태범·이원수, 2014)는 생태적 타당성을 고려해 비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어떤 의제와 속성을 강조해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고의 책임문제를 누구에게 어떤 속성으로 귀인하는지를 키워드 의제설정(key words agenda setting)과 네트워크 의제설정(network agenda setting), 그리고 네트워크 프라임(network priming) 이론에 근거해 비교 제시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Corbu & Hosu, 2017 참고). 이들 이론들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대상들(objects)과 속성(attributes)을 보여줌으로써 재난사고의 성격과 책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첫째는 키워드 의제설정 관점에서 방송이 세월호 보도과정에서 강조하는 주요 의제를 통해 재난사고의 무엇에 주목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관점에서 키워드 사이의 구조와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방송이 세월호 재난사고 속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사고 책임과 대책에 대한 평가에 동원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이 세월호 사고 책임주체를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있는지를 제시한다.

키워드와 네트워크 분석은 이론적으로 재난사고 방송 보도에 대한 의제설정과 프레이밍을 검증하고, 나아가 사고 책임주체별 속성 프레이밍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연구자의 자의적 내용분석에 기반해 수행되었던 선행 의제연구와는 달리 방송 보도에 사용된 키워드, 또는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기계적으로 자동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방송 재난보도의 특성을 비교 제시해 볼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한다.

2. 이론적 논의

1) 미디어의 키워드 의제설정

미디어는 언어와 영상을 통해 뉴스를 일정한 패턴으로 조직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뉴스 언어는 사람들이 특정 의제를 더 주목하게 하거나 기억을 강화시킨다(Fowler, 2013). 뉴스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미디어가 정치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초기 의제설정(agenda-setting) 이론에 바탕을 둔다(Corbu & Hosu, 2017). 전통적으로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설정한 대상이나 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위계적 순위가 대중들이 생각하는 대상이나 속성과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해 왔다(McCombs & Shaw, 1972). 이들 의제설정 이론은 2차 의제설정(Shaw, 1977), 프레이밍(framing)과 프레이밍(priming)(Iyengar & Kinder, 1987), 그리고 의제 융합(agenda melding)(Shaw, McCombs, Weaver, & Hamm, 1999)의 단계로 발전해 왔다. 선행 의제설정 이론들은 미디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지(what and how to think)”를 알려주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일상적 대화에서 어떤 토끼를 토론할 때 “무슨 단어(what words)”를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Corbu & Hosu, 2017; Vu, Guo, & McCombs, 2014). 다시 말하면, 전통 의제설정 이론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데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무엇에 의해 그 무엇이 중요해지는 파생적인 맥락이나 의제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디어는 언어를 사용해 다양한 사건이나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연상 효과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결국 뉴스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재구성된 현실(reconstructed reality)’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미디어는 이 과정에 특별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이 다른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키워드들(keywords)과 표현들(expressions)을 제공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표현하고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인지시키며, 우리는 이것을 키워드 의제설정(key-words agenda setting)이라고 부른다(Corbu & Hosu, 2017). 키워드 의제설정 모델은 미디어의 핵심어로 구성된 하부 토픽들(subtopics)이 무엇이며, 이 하부 토픽들이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전이되는가를 보여 준다. 인지 모델 관점에서 사람들은 미디어가 다룬 최근 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태그(tag)”와 함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기억에서 인출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미디어가 뉴스나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사람들은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최근 일어난 사회적 이슈를 토론한다(Corbu & Hosu, 2017). 사람들은 그날의 토픽들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 필요한 키워드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혼자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뉴스는 그것이 어떤 특정 키워드들로 제시되거나 키워드와 키워드로 연결되어 맥락을 이룰 때 의미구성 체계가 완성된다.

키워드는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키워드 의제설정 이론을 적용해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재난사고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미디어 키워드를 통해 사고의 의제가 제시되었다. 진보 신문은 진상규명, 정부, 주검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에, 보수 신문은 조문, 분향소, 교수, 침몰, 여객선 등의 키워드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에 초점을 맞추었다(황유나·전미현·유재용, 2016). 또 다른 연구(김영욱·함승경·김영지, 2017)에서도 진보 신문은 참사, 사회, 사람 등의 키워드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사회와 구조의 문제로 부각한데 반해, 보수 신문은 대표, 의원, 국회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사고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재난방송 주관사이자, 공영방송인 <KBS>와 상업방송인 <채널A>가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어떤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고, 의제를 제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KBS>와 <채널A>가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사용한 키워드 의제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미디어의 네트워크¹⁾ 의제설정

사회 현실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문제나 대상(혹은 속성)만을 보고는 현실의 실제적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특정 대상도 사실은 여러 다른 대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 연결 관계를 파악할 때 사회문제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논거와는 달리 전통 의제설정 이론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출발하였다(Guo & McCombs, 2011; Vu et al., 2014). 하나는 인간의 정신적 재현은 주로 논리적, 선형적인 모델 속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였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것은 이슈로 불리도 된다)이나 속성의 현저성 전이는 분리되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전통 의제설정 이론들이 가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인지과정이 반드시 위계적이거나 선형적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은 불확실하다. 사람들은 이보다는 카플란(Kaplan, 2005)의 주장대로 네트워크와 같은 비선형적 연결 구조(network-like structure) 속에서 정보를 보다 역동적으로 처리하는 쪽에 더 가깝다(Guo & McCombs, 2011). 두 번째 가정인 이슈나 속성 현저성이 분리되어(discretely) 전이되는가 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수용할 때 하나의 정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관련 정보를 연결해 연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Vu et al., 2014).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슈의 대상(1차 의제설정)이나 이슈의 속성(2차 의제설정)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제시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미디어가 구성한 이슈의 대상이나 이슈의 속성이 서로 연결되어 의제설정 기능을 한다는 이론적 틀이 바로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3차 의제설정)이다(Guo, 2016; Guo & McCombs, 2016; Vu et al., 2014).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은 이슈들과 속성들 간의 내적 관계(interrelationships)의 현저성이 미디어에서 공중에게 전이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은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의제(혹은 토픽)나 속성의 묶음(bundles)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미디어 의제나 속성은 묶음이나 서로 연결된 지도(maps), 또는 다이어그램(diagrams) 형태로 전달되며, 인간의 인지 재현 역시 선형적(linear)이기보다는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network-like structure) 속에서 작동한다(Corbu & Hosu, 2017; McCombs, Shaw, & Weaver, 2014). 미디어의 네트워크 모델은 결국 특정 토픽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 노드들(information nodes)²⁾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 의해

1) 네트워크의 기본 아이디어는 수많은 노드가 서로 연결된 그림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제공해준다(Kaplan, 1973).

드러난 각 의제는 그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며, 주요 하부 토픽과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Corbu & Hosu, 2017).

전통 의제설정 이론에서 말하는 1차 의제인 단어 혹은 대상, 2차 의제인 속성 혹은 프레임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노드(nodes)를 통해 서로 연결 구조를 갖는다. 네트워크 모델은 개인의 인지적 지도안에 있는 이들 노드 간의 동시 출현과 거리를 측정하는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은 미디어가 이슈에 대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what and how to think about)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뿐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what and how to associate)를 보여준다(Guo, 2016; Guo & McCombs, 2011). 뉴스 미디어가 이들 두 요소를 동시에 언급하면 할수록 수용자들은 이 두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Guo, Vu, & McCombs, 2012).

미디어가 제시하는 의제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결된 상태로 저장된다. 따라서 미디어가 자주 함께 다루는 의제는 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의제를 떠올리면 그와 연결된 의제들과 속성이 함께 떠오르게 된다(Guo et al., 2012). 각 이슈(예: 전쟁, 선거, 재난)는 “키워드”의 전이를 통해 그 이슈에 관련된 하부 토픽들(subtopics)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난민자의 의제와 연관된 일부 하부 의제는 “정치적 망명”, “난민 할당제”, “유대”, “인간위기”와 같은 키워드들로 서로 연결된다 (Buturoiu, Stefanita, & Corbu, 2017). 이에 이 연구는 방송 매체가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네트워크 의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KBS〉와 〈채널A〉가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네트워크 의제와 속성을 어떻게 구성해 강조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미디어의 네트워크 프라임

프라임(priming)은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의 내용과 속성이 정부, 대통령, 정책, 후보 등 공적 인물(혹은 사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개념이다(Iyengar & Kinder, 1987). 예를 들어 미디어가 경제문제를 자주 보도할 경우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한다. 미디어는 경제이슈를 다른 이슈에 비해 자주, 또는 큰 비중으로 보도

2) 노드는 단일 단어(words), 대상(objects), 그리고 그들의 속성(attributes)을, 혹은 보다 상위 차원에서는 스키마와 프레임을 구성한다(Price, Tewksbury, & Powers, 1997).

할 경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경제이슈에 근거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미디어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잊어 버렸거나 무시했던 잠재적 의식을 일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한다(이완수, 2006). 미디어가 강조하는 대상이나 이슈에 의해서만 프레이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가 어떤 이슈의 속성을 강조할 경우 그 이슈와 관련된 인물의 평가는 언론이 강조하는 속성에 근거해 이뤄진다(Kiousis, 2003; McCombs, 2005). 재난사고 보도에서 미디어가 어떤 하부 속성을 강조할 경우 사람들은 그 하부 속성을 기준으로 책임의 문제를 평가하게 된다.

프레이밍은 인지 심리와 기억의 연상모델(associative model of memory)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Perea & Rosa, 2002). 모든 새로운 개념은 네트워크 속에 있는 노드(node)로 저장되며, 의미 경로를 따라 다른 개념과 연결된다(Corbu & Hosu, 2017). 프레이밍 효과는 외부적 자극이 의미론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속에 있는 어떤 노드의 활성화(activation)로 발생한다. 활성화된 노드는 판단을 형성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때 해석적 필터(interpretive filter) 역할을 한다. 미디어가 어떤 노드로 이슈나 그 이슈의 속성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에서 설명하는 공적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정보 처리의 기억 기반 모델(memory-based 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억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출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이나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한다(Scheufele, 2000). 그런 점에서 네트워크 프레이밍은 의제설정 이론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억 기반 정보 처리모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기억이 가장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제와 그 의제에 대한 속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Iyengar & Kinder, 1987). 뉴스 보도에서 프레이밍은 결국 키워드나 키워드 간의 연결성이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정책이나 인물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세월호 보도에서 다양한 세부 이슈(청해진, 박근혜 대통령, 유병언, 희생자 유가족 등)가 부각되었고, 이러한 이슈들이 세월호 사고수습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Park, Jang, & Doh, 2021)

선행 연구들은 언론이 특정 이슈를 프레이밍하면, 이를 근거로 평가 기준이 정해진다는 사실은 보여줬지만, 각 책임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사용되며, 이들 키워드 사이에 네트워크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방송 매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책임주체별로 어떤 속성을 강조해 네트워크 프레이밍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3: 〈KBS〉와 〈채널A〉가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책임주체별로 강조하는 네트워크 속성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8~9시 저녁 종합뉴스 시간에 보도된 세월호 사고 뉴스 헤드라인을 분석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304명의 희생자들이 수장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달되어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집단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애도와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재난 사고였다(Khang, Lee, & Kim, 2020; Kim, Lee, & Jeon, 2022). 또한 구원파로 불리는 종교집단과의 연루 가능성, 세월호의 증축 과정에서의 안전 검사 부실, 운항 당시의 선박 적재량의 적정성 검사의 부실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미디어의 보도 구성 체계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이슈로 평가된다(Lee, Khang, Shin, Lee, & Brown, 2020). 특히 정부의 부실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고, 초유의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진 정치적 사건의 성격까지 지녀 책임주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Park et al., 2021).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에 세월호 재난사고는 발생한지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요한 학술적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Kim et al., 2022).

방송 뉴스 헤드라인은 사회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와 의미를 현저하게 드러내기 위해 특정 언어를 통해 강조되어 표현된다(이완수 최명일, 2020). 따라서 우리는 헤드라인을 통해 세월호 사고의 주요 의제와 의제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책임 주체에 따라 어떤 속성으로 귀인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뉴스 헤드라인은 기사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제목을 뽑는 과정에서 편집데스크의 판단이 개입된다. 이 과정에서 편집 데스크의 의도,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독립적인 문장으로 간주된다(김민영, 2007). 또한, 최근의 뉴스 소비 행태를 보면, 제목만을 읽거나 리드 부분만을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강현직, 2012).

분석대상 매체는 공영방송사이자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와 민영 상업방송사이자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하나인 〈채널 A〉를 선택했다. 특히 국내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채널 A〉는 정과

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매체라는 평가도 있지만(이정훈·이상기, 2016; Park & Kaye, 2022),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많은 분량의 기사를 생산했으며, 기사 내용도 중편 채널 중 검증 보도가 가장 앞선 점, 그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보도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연구자들은 <KBS>는 공영방송사이자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채널A>는 세월호 사고 보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정파적이고, 덜 상업적이었다(권상희 등, 2014)는 점에서 분석 데이터의 생태적 오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이들 두 방송매체는 사회적 재난사고에 대한 상호 의제구성의 차이를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할 때 외관적 타당성(face validity)이 상대적으로 높다.

분석을 위한 해당 뉴스 아이템은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분석 데이터는 지상파 방송인 <KBS> 758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542건이다. 두 방송사가 이 시기에 보도한 기사 추이를 보면 (Figure 1)과 같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초기 나흘 동안 (4월 16일~19일)에 <KBS>가 보도한 기사 건수는 중편 <채널A>와 비교해 평균 3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KBS>는 사고 발생 일주일쯤 지나면서 보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17일째부터는 보도 기사가 더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채널A>는 <KBS>에 비해 사고 발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보도 빈도가 적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동안 비교적 일관된 빈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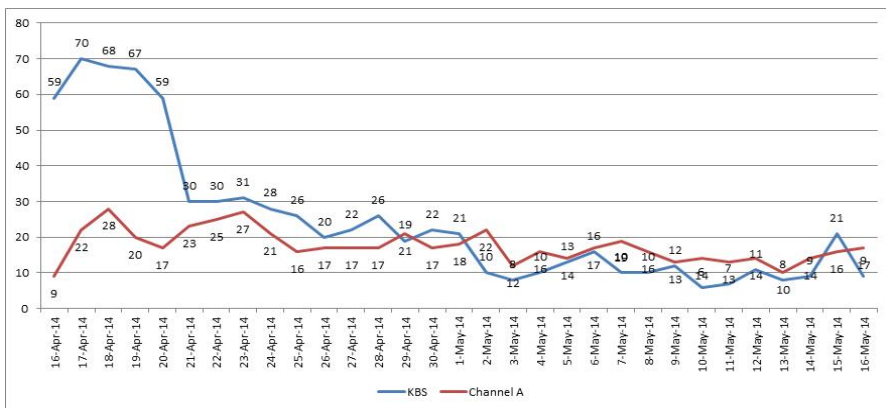


Figure 1. Trend of Ferry Sewol Coverage by Broadcasting Media

2)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보도에 동원된 키워드와 그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사고

주체별 속성에 따라 어떻게 프라이밍이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해 의미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의미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Popping, 2000). 이는 특정한 정보와 지식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Sowa, 1984). 예를 들어, '세월호'라는 단어가 '사고'와 '수색'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것과 주로 연결이 되는가에 따라 언론이 규정하는 세월호 사고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의미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4단계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요 빈출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KrKwic 프로그램(박한우·Leydesdorff, 2004)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각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에서 강조하는 의제를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 빈출단어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KBS>와 <채널A>에서 등장하는 상위 30%의 단어를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멱함수 법칙 분포(power law distribution)에 따르면, 키워드들이 균등한 연결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키워드가 다수의 링크를 가지며, 다수의 키워드가 소수의 링크를 갖기도 한다(이수상, 2012). 이 연구의 경우도 <KBS>의 경우에 총 1,632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채널A>의 경우 총 1,547개의 단어가 등장하지만, 소수의 단어가 다수의 링크를 차지한다. 따라서 등장빈도가 많은 단어를 분석대상 키워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 20%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적은 단어(<KBS> 32개, <채널A> 29개)를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어 네트워크 구조의 포괄성을 보여주기 어렵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친 결과, 상위 30%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포괄성, 분석결과의 명확성 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KBS>는 107개, <채널A>는 65개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선정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행렬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KBS>의 경우에 107×107, <채널A>는 65×65의 행렬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Krtitle 프로그램(박한우·Leydesdorff, 2004)을 이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전체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 Uninet과 Netdraw(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의제설정과 각 사고책임 주체별 속성 프라이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의제설정을 위해서는 키워드 사이의 전체 네트워크 분석과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방법을 이용한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책임 주체별로 어떤 속성으로

프라이밍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책임에 대한 개별 주체를 중심으로 한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방송 매체가 세월호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어떤 언어를 동원해 의제를 현저하게 강조하는지를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의제를 살펴보았다(〈Table 1〉 참조). KBS의 경우에 수색(65회), 사고(55회), 구조(51회), 세월호(48회), 유병언(34회), 안전(33회), 해경(29회), 상황(24회), 가족(22회), 탈출(21회) 등 상위 10개 키워드가 주요 보도 언어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채널A는 세월호(69회), 유병언(53회), 구원파(27회), 가족(25회), 시신(23회), 수색(22회), 해경(22회), 실종자(19회), 참사(19회), 사고(18회) 등 상위 10개 키워드가 주요 보도 언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춰볼 때 〈KBS〉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수색, 구조, 안전에 대한 의제를 강조했지만, 〈채널A〉는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과 관련 종교단체인 ‘구원파’, ‘금수원’, ‘왕국’과 함께 ‘시신’, ‘실종자’, 그리고 ‘참사’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 의제가 보다 많았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KBS〉는 ‘대통령’(8회)을 보도 의제로 적게 다루었지만, 채널A는 ‘대통령’(16회), ‘박근혜’(13회) 등 대통령 관련 의제를 많이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able 1. Keyword Agenda for <KBS> and <Channel A>

KBS		Channel A	
freq.	Keywords	freq.	Keywords
65	search	69	Ferry Sewol
55	accident	53	Yoo Byung-eon
51	rescue	27	salvation sect
48	Ferry Sewol	25	family
34	Yoo Byung-eon		
33	safety	23	bodies of the victims
29	maritime police	22	search, maritime police
24	conditions	19	missing person, disaster
22	family	18	accident

21	escape	16	president
		15	rescue
19	missing person	14	tears, captain
17	captain, investigate		
16	enter	13	Park Geun-hye, sinking, escape
15	hull, suspicion, sinking	12	Keumsuwon, investigate
12	prosecution, vessel, passenger, passenger ship, shock, cargo	10	diver, the eldest son, government, Jindo island
11	crew, sailing, put, student, scene	9	diving bell, Semo, summons, passenger, attempt
10	time, condolence	8	prosecution, controversy, believer, bereaved family, commemorative, entourage, put, Paengmok port
9	communication, lifeboat, diving bell, Danwon High School, summons, collect, bodies of the victims, Ansan, cause, salvage, responsibility, Paengmok port	7	leader, flagship, collect, son, children, family of the deceased, suspicion, Chon Yang-ja, investigation, Blue House
8	disclose, tomorrow, controversy, president, last, beforehand, cabin, declaration, demand, diver, all the members, first, departure, occupant, the seas, casualty		
7	room, inspection, continuous, anchor, overload, the public, difficult, weight, problem, upstream, flagship, prow, life & death, sadness, unusual, operation, check, investigation, Jindo island, confusion	6	heart, compartment, land, apology, death, photo, crew, sadness, attendant, safety, visual, Kingdom, salvage, operation, funeral message, enter, Cheonghaejin Shipping, chase, procession
6	breakdown, pray, response, leader, private sector, ocean, footstep, broadcasting, collapse, death, on board, mourning, true or not, women, journey, loss, Yoo family, diving, Property, government, funeral message, support, launch, the best, commemorativ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erference		

이어서 <KBS>와 <채널A>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키워드와 차별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했다(Figure 2) 참조. 분석 결과, <KBS>와 <채널A>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총 38개이며, <KBS>에만 등장하는 키워드는 총 68개, <채널A>에만 등장하는 키워드는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BS>와 <채널A>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세월호, 수색, 유병언, 사고, 구조, 해경, 가족, 안전, 실종자, 탈출, 시신, 선장, 수사, 침몰, 대통령, 의혹, 진입, 승객, 검찰, 투입, 다이빙벨, 소환, 잠수사, 선원, 진도, 팽목항, 논란, 수습, 배, 정부, 인양, 배, 조사, 추모, 대표, 슬픔, 작업, 사망, 조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키워드를 통해 <KBS>와 <채널A> 모

두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고 수습 상황, 이해관계자 수사, 국민적 추모 등의 의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BS> 보도에만 등장하는 키워드는 선체, 선박, 여객선, 충격, 화물, 운항, 학생, 현장, 시간, 위로, 상황, 교신, 구명정, 단원고, 안산, 원인, 책임, 공개, 내일, 마지막, 먼저, 현실, 신고, 요구, 전원, 첫, 출항, 탑승자, 해역, 희생자, 객실, 검사, 계속, 고정, 과적, 국민, 난항, 무게, 문제, 물살, 뱃머리, 생사, 이상, 점검, 혼란, 고장, 기원, 대응, 민간, 바다, 발길, 방송, 붕괴, 선내, 애도, 여부, 여성, 여행, 유실, 일가, 잠수, 재산, 지원, 착수, 최선, 해수부, 혼선 등 총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KBS>는 크게 3가지 보도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사고 원인, 과적, 이상, 점검, 고장 등의 키워드를 동원해 선박 자체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출항, 해역, 물살, 바다 등의 키워드를 통해 사고 현장의 특성이나 상황에 보도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단원고, 안산, 발길, 애도 등의 키워드를 통해 학생 희생자에 대한 보도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채널A>에만 등장하는 키워드는 구원파, 참사, 눈물, 박근혜, 금수원, 장남, 세모, 시도, 신도, 유가족, 측근, 아들, 아이, 유족, 전양자, 청와대, 가슴, 격실, 땅, 사과, 사진, 수상한, 승무원, 영상, 왕국, 청해진해운, 추적, 행렬 등 총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구원파, 세모, 금수원, 성도, 왕국 등의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채널A>는 <KBS>와 비교해 세월호 사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과 관련한 특정 종교 집단의 문제와 연관된 주변부적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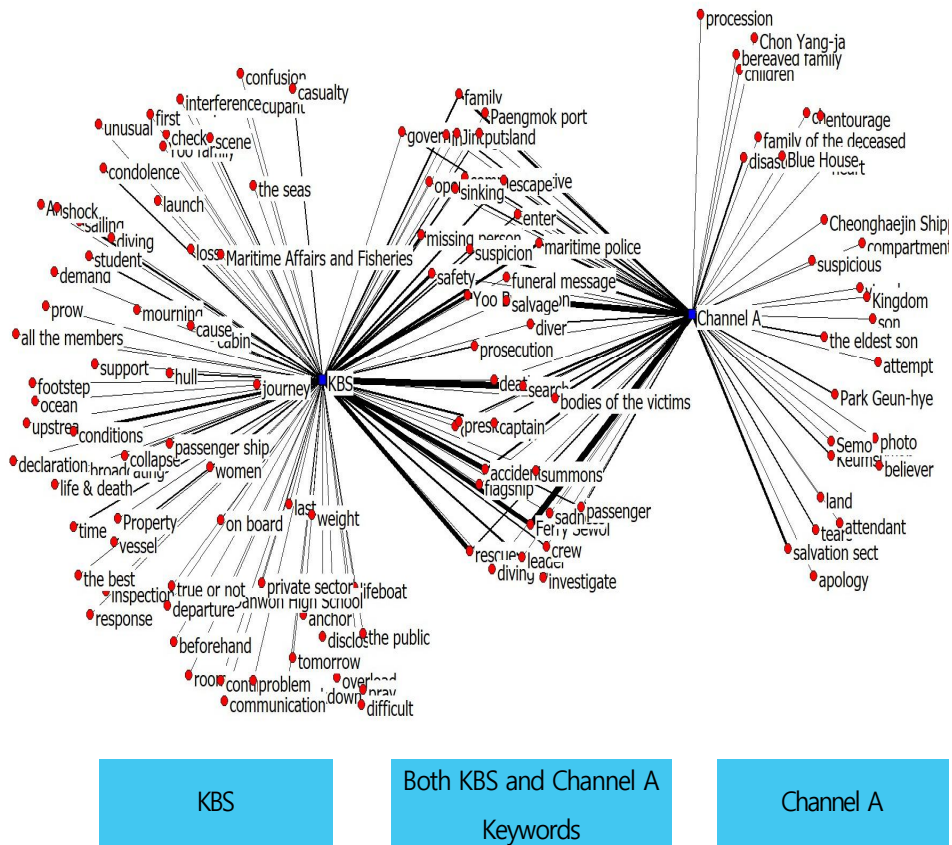


Figure 2. Common and Separate Keywords appearing in <KBS> and <Channel A>

2) 연구문제 2의 결과

다음으로 <KBS>와 <채널A> 사이에 네트워크 의제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네트워크의 시각화는 Spring Embedded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알고리즘은 다른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한 키워드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키워드 사이에 관계성이 높을수록 서로 근접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Kamada & Kawai, 1989). 한편, 키워드의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파란색 사각형의 크기), 키워드 사이의 선은 키워드 사이의 동시출현빈도가 많을수록 굵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BS>의 경우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색 및 구조 작업, 책임주체(해경, 선장)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한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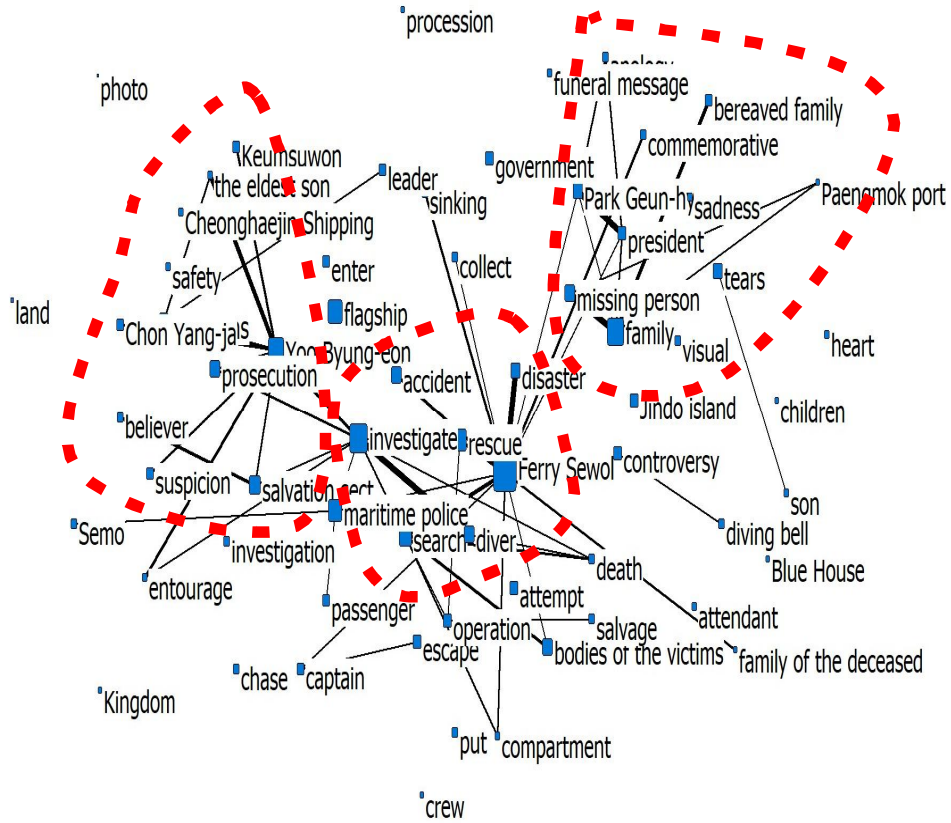


Figure 4. Network Attribute Agendas of <Channel A>

Note: Only the cases where keywords more than 3 times connection are included, so that entire network structure can be seen more clearly

이어서 방송 매체가 세월호 재난사고 보도에서 강조하는 속성 의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BS)와 (채널A)가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나타난 하위 집단 추출을 통해 속성 의제를 밝혔다. 세월호 재난사고 속성 의제는 CONCOR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CONCOR 분석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위 속성 의제를 찾아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고려해서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끼리 집단 속성으로 구분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개의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키워드가 다른 모든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하위 속성 의제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하위 속성 의제별로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김용학, 2011).

분석 결과, <KBS>와 <채널A> 모두 총 8개의 하위 의제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4개, 8개, 16개 의제로 구분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인 보도 경향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서 8개 의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참조).

<KBS>와 <채널A>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보도 속성 의제는 ‘세월호 수색 상황’, ‘유병언 일가 수사 상황’, ‘민간 잠수사 투입 논란’, 그리고 ‘사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에 집중되었다. <KBS> 보도에서만 발견된 보도 속성 의제는 ‘사고 원인 분석’, ‘정부의 부실 관리 비판’, ‘추모 현장’, ‘교신 상황’ 등인 것으로 나타나 <KBS>는 사고 원인과 수습과정에 대한 의제를 강조하는 편이었다. <채널A>의 보도에서만 발견되는 보도 속성 의제는 ‘사고 수습 과정 및 갈등’, ‘유가족의 눈물 및 대통령의 사과’, ‘구원파 조사 상황’, ‘선장 탈출’ 등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갈등성과 개인성에 관한 선정적 의제가 강조되었다.

Table 2. Network Attribute Agendas for <KBS> and <Channel A>

Sub attribute Agendas	KBS	Subattribute Agendas	Channel A
	Keywords		Keywords
Ferry Sewol search conditions(20)	room, continuous, diving bell, upstream, collapse, conditions, on board, cabin, hull, Ferry Sewol, search, collect, bodies of the victims, demand, loss, reason, enter, operation, interference, the seas	Ferry Sewol search conditions(7)	compartment, death, Ferry Sewol, search, bodies of the victims, salvage, operation
Controversy over the use of private divers(9)	controversy, private sector, death, investigate, time, diving, diver, put, maritime police	Incident handling process and conflict(9)	controversy, crew, collect, attempt, children, family of the deceased, disaster, Blue House, commemorative
Investigation of Yoo Byung-eon's family(8)	prosecution, overload, leader, summons, true or not, Yoo Byung-eon, Yoo family, Property	sadness of the family of the accident(8)	heart, family, diving bell, attendant, son, visual, Paengmok port, procession
Analysis the cause of the accident(15)	breakdown, anchor, response, problem, captain, passenger ship, journey, sailing, cause, suspicion, check, investigation, launch, responsibilit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ears of the bereaved family and the president's apology(10)	tears, president, Park Geun-hye, apology, sadness, missing person, bereaved family, government, funeral message, Jindo island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13)	lifeboat, rescue, president, broadcasting, accident, life & death, vessel, passenger, safety, government, funeral message, departure, escape	Investigation of Yoo Byung-eon's family(6)	prosecution, leader, summons, Yoo Byung-eon, the eldest son, chase

sadness of the family of the accident(19)	family, pray, difficult, tomorrow, last, beforehand, crew, missing person, condolence, salvage, all the members, support, sinking, the best, occupant, Paengmok port, student, scene, confusion	Investigations of salvation sect (11)	salvation sect, Keumswun, photo, believer, Kingdom, suspicion, Chon Yang-ja, investigation, enter, Cheonghaejin Shipping, entourage
commemorative site(14)	inspection, the public, Danwon High School, ocean, footstep, prow, sadness, declaration, Ansan, mourning, unusual, Jindo island, commemorative, shock	Escape of captain(6)	land, captain, safety, sinking, escape, maritime police
Communication situation(8)	disclose, communication, weight, flagship, women, first, cargo, casualty	Controversy over the use of private divers(8)	rescue, flagship, accident, Semo, investigate, passenger, diver, put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means the number of keywords belonging to each sub-attribute agenda.

3) 연구문제 3의 결과

연구문제 3에서는 지상과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사고책임 주체별로 네트워크 프레이밍 속성이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고 책임 주체를 해경, 대통령, 선장, 유병언으로 설정하고, 다른 키워드들과 어떠한 연결 관계를 통해 프레이밍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인물 또는 집단을 책임주체로 정한 이유는 세월호 사고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박근혜(책임론과 함께 지지율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탄핵), 해경(해경의 과적 단속, 구조 부실), 선장(침몰 중에 승객들에게 선내에 머물도록 한 부분), 그리고 유병언(사고 해결 및 처리 과정의 부실)과 관련된 이슈가 상호보완, 또는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Park et al., 2021)에 근거했다.

분석 결과의 시각화는 MDS(Multi-Dimensional Scaling)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유사성이 높은 키워드일수록 가깝게 위치하며, 유사성이 낮은 키워드일수록 멀리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 사이의 선의 굵기는 키워드 사이의 선의 굵기는 동시출현빈도와 비례해서 나타나도록 하였다.

〈KBS〉에 대한 프레이밍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사고책임 주체별로 살펴보면, 유병언은 소환(8회), 검찰(6회), 일가(5회), 대표(3회), 세월호(3회), 재산(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병언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책임 문제가 프레이밍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경은 구조(6회), 수사(4회), 시간(4회), 투입(4회), 잠수(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객 구조 및 수사 활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책임 문제가 프레이밍 되었다. 선장은 사고(5회), 탈출(4회), 원인(3회), 조사(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장

이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책임자이며, 사고 원인이 먼저 탈출한 책임에 기인했다는 점을 프라이밍했다. 대통령은 안전(2회), 국민(2회), 가족(2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이나 사고 수습, 유가족 위로와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고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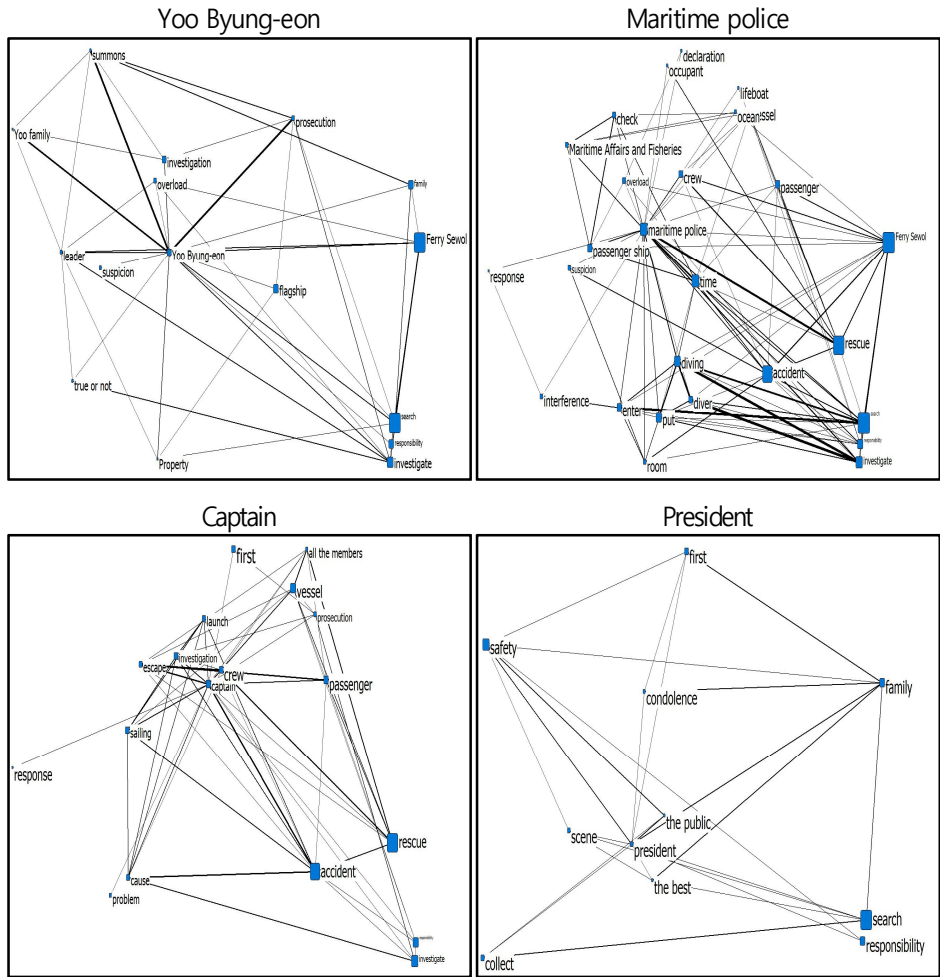


Figure 5. Priming according to Ferry Sewol Disaster Responsibility(KBS)

이에 반해 <채널A>의 네트워크 속성 프라이밍 분석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유병언은 장남(10회), 소환(8회), 금수원(5회), 수사(5회), 측근(5회), 전양자(3회), 검찰(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병언 일가와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으로서 프라이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경은 수사(3회), 세월호(3회), 세모

(3회), 승객(3회), 구원파(2회), 사고(2회), 구조(2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았으며, 승객 구조와 수색,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활동의 책임주체라는 관점에서 프라이밍하였다. 선장은 탈출(3회), 세월호(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맞춰 프라이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박근혜(12회), 가족(4회), 사과(4회), 세월호(3회)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통령을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한 모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고 수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프라이밍했다고 볼 수 있다. <채널A>는 <KBS>와 달리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 책임과 연관 지어 프라이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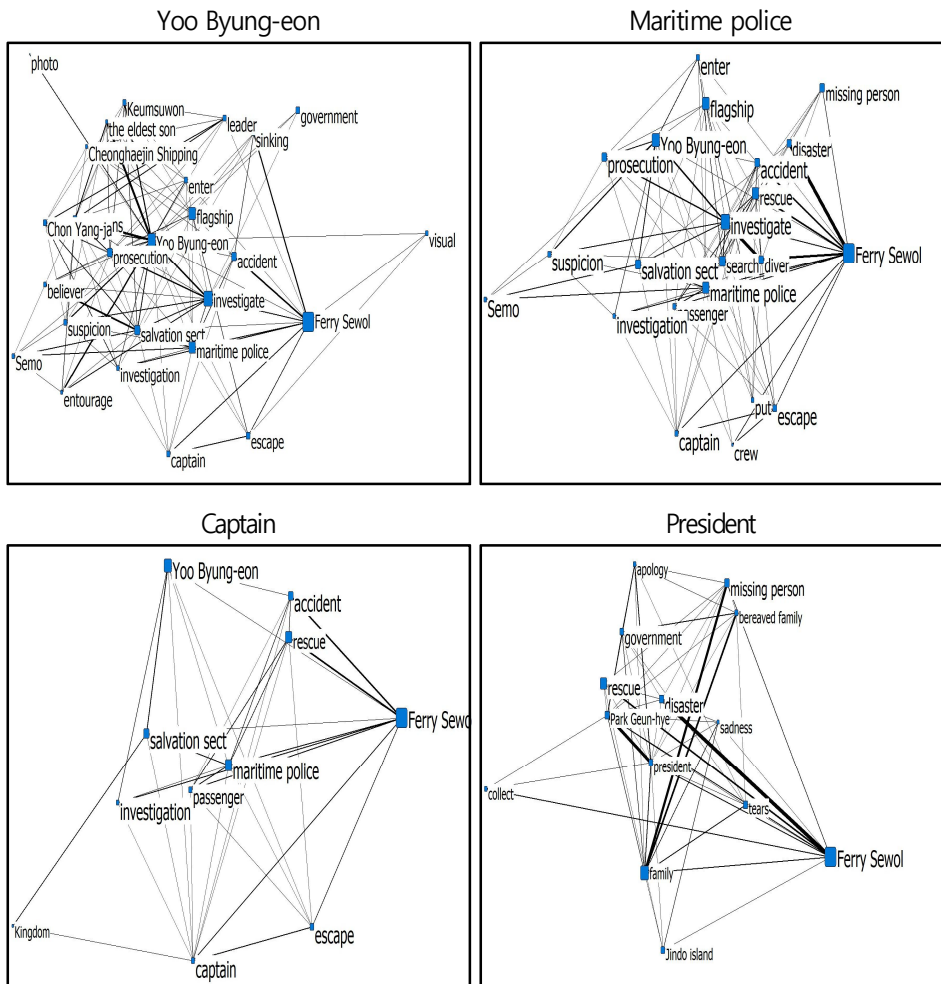


Figure 6. Priming according to Ferry Sewol Disaster Responsibility(Channel A)

위의 내용을 토대로 <KBS>와 <채널A>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각 사고책임 주체별로 동원되는 키워드가 다르며, 각 사고책임 주체별로 두 방송 매체가 부각하거나 초점을 맞춘 부분이 달랐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3>의 내용과 같다.

유병언과 관련해서는 <KBS>와 <채널A>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해경과 관련해서도 승객 수사 및 수사 활동의 주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장과 관련해서는 <KBS>의 경우에 사고의 1차적 책임자라는 점과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한 비난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채널A> 역시 먼저 탈출에 대해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춰 프라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KBS>의 경우에 국민의 안전이나 사고 수습을 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채널A>에서는 대통령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Table 3. Agenda Attributes of <KBS> and <Channel A> for Accident Responsibility

	KBS	Channel A
Yoo Byung-eon	-The subject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subject by the investigative agency
Maritime police	-Passenger rescu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Passenger rescu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Captain	-The person of primary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Accusations of the first escape	-Accusations of the first escape
Presiden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he control of accidents	-Apologies to bereaved families and families of missing persons

5. 결론과 함의점

이 연구는 세월호 재난사고에 대한 키워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방송 매체가 강조하는 사고 의제와 속성, 그리고 사고 책임주체에 대한 프라임 결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 재난 방송 주관사인 <KBS>와 상업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구성하는 키워드 의제와 네트워크 의제를 비교 제시해 보았다. 먼저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주로 동원된 키워드와 각 방송 채널별 의제가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1), <KBS>는 수색, 사고, 구조 등과 같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의제를 전달하는 키워드를 보다 많이 사용했다. 이에 반해 <채널A>는 유병언, 구원파, 시신, 실종자 등과 같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키

워드 의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공영 방송사인 <KBS>는 사고 수습과 희생자 수색에 대한 의제에 집중했지만, 상업 방송사인 <채널A>는 유병언과 그의 종교단체, 그리고 희생자 시신과 같은 사고 수습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거리가 있는 주변부적 의제에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방송 채널이 세월호 사고 의제를 어떻게 네트워크화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 <KBS>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구조, 실종자, 사고, (구조)시간, 수색, 잠수, 책임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의제를 형성했다. 하지만 <채널A>는 세월호를 중심으로 참사, 수색, 구조에 대한 의제 1그룹, 유병언을 중심으로 검찰, 구원파, 청해진해운, 소환에 대한 의제 2그룹,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실종자, 박근혜, 유기족, 눈물에 대한 의제 3그룹으로 분리해 구성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KBS>의 네트워크 의제는 사고 수습이나 수색의 속성에 집중한데 반해, <채널A>는 세월호, 유병언, 가족의 의제가 서로 거리를 두고 분리되거나 분산된 방식으로 의제가 산만하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하위 집단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속성 프레이밍을 분석한 결과, <KBS>는 세월호 수색 상황, 사고 원인 분석, 정부의 부실 감독과 관리에 집중한데 반해, <채널A>는 사고 수습과정에 빚어진 갈등, 유기족의 안타까운 사연,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구원파 조사와 같은 사고의 본질을 벗어난 갈등과 흥미중심의 속성 의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인 상업방송이 사고책임 주체별(해경, 대통령, 선장, 유병언)로 어떤 네트워크 프레이밍 속성을 강조하는지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에서도 <KBS>와 <채널A>는 책임주체에 따라 속성 프레이밍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해경에 대해서는 <KBS>와 <채널A> 모두 수사, 구조 등의 키워드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객구조 및 수사 활동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선장과 관련해서도 <KBS>와 <채널A> 모두 탈출과 연관시킴으로써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해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 책임 속성에 대해서는 두 매체 간에 차이가 있었다. <KBS>는 안전, 국민, 위로 등과 연관된 키워드를 프레이밍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로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반해, <채널A>는 대통령을 가족, 사과 등의 키워드와 연결해 프레이밍 함으로써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할 주체자로 부각했다. 유병언과 관련해서는 <KBS>의 경우 소환, 검찰 등과 같은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대상으로 프레이밍 하였지만, <채널A>는 장남, 소환 등의 키워드와 연관시킴으로써 유병언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종교 집단까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폭넓게 프레이밍 했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재난이슈 보도를 함에 있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서로 다르게 의제를 구성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영방송은 재난사고 수습과 대책을 중심으로 보도 의제를 강조했다지만, 상업방송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의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재난사고와 관련한 의제들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키워드를 연결해 제시하는데 반해, 상업방송은 의제 선택과정이 산만하고, 연관성과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키워드를 사용했다.

둘째는 사회적 재난이슈 보도에 대한 키워드 의제와 네트워크 의제를 통해 이슈의 내용이 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얻었다. 사회적 재난이슈 보도에서 드러난 키워드와 이들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이슈의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상(objects)을 밝혀봄으로써 미디어가 강조하는 1차 의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미디어 키워드 의제설정은 언어(혹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제시해 볼 수 있으며, 재난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의 하부 의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해준다.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 이슈의 기본 정보와 의제가 무엇(what)인지 알 수 있다.

셋째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속성(attributes) 의제들이 서로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재난이슈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사고/사건을 재조직해 연상(association)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슈의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하부 의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드러난 의제 사이의 연결 관계를 통해 사고나 사건 속성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2차 의제설정 연구에서는 의제가 서로 독립적이거나 분리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제와 하부 의제들이 서로 키워드로 연결되어 묶음을 이루고, 맥락화되어 연상 작용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의제로 사고 현실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보다는 그 의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서로 묶음(bundles)을 이루고, 지도화(mapping)되고, 그리고 다이어그램(diagrams)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는 모형 속에서 우리는 사회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은 뉴스가 구성되는 과정에 다양한 이슈 사이에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재현된다(백선기·이금이, 2011).

넷째는 사고 책임주체에 대한 책임의 속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지 밝혀볼 수 있었다. 뉴스에서 책임의 문제에 대한 프레이밍은 기억과 연상을 통해 이뤄진다. 하나의 의제가 강조되면 그 의제를 중심으로 연상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프레이밍으로 작용한다. 네트워크 프레이밍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연상을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책임의 문제에 대한 평가와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네트워크 속에 어떤 의제의 속성이 노드(node)를 통해 활성화

되며, 그 노드의 속성을 중심으로 책임에 대한 프라이밍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슈에 대한 책임의 속성 문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프라이밍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의제설정 연구를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뉴스에서 대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1차 의제설정은 키워드 의제설정 모델을 통해, 속성이나 하부 의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2차 의제설정과 그리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프라이밍 속성 의제설정은 각각 네트워크 의제설정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의제설정 모델과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을 적용해 의제설정 연구를 실증적으로 수행한 예는 별로 없었다(Guo & Vargo, 2015 참조). 따라서 이 연구는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제설정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재난 저널리즘 관점에서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도 준다. 첫째는 공영방송 채널인 <KBS>와 상업방송 채널인 <채널A> 모두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회적 재난사고의 실체에 접근하는 의제를 충실히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 <KBS>는 국가 재난주관 방송사로써 사고 수습에 집중한 보도 의제를 선택했지만, 재난관리 관점에서 고통의 완화, 사고에 대한 대비와 반응, 그리고 유가족 개인과 국가의 탄력 회복(resilience recovery)의 문제가 보도 의제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마디로 보도과정에 사고에 대한 문제 정의, 원인 진단, 처방에 대한 의제를 조직적으로 다루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공영방송과는 달리 상업방송인 <채널A>는 비극적인 세월호 재난사고를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흥미 중심적인 언어와 속성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채널A>는 사고 의제를 실종자 시신, 유가족의 통곡, 선주인 유병언과 그의 일가, 그리고 구원과 종교단체에 카메라가 쫓는 선정주의 보도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사고 원인과 진단, 수습과 회복의 문제에 대한 중심부적 의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주변부적 의제를 산발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고 원인과 수습과정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셋째, 두 방송매체가 보여준 사고 책임주체에 대한 평가 의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KBS>는 대통령에 대한 보도 프라이밍에서 대통령의 책임 귀인을 축소하고, 대신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의 이픔을 위로하는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의제 구성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반해 <채널A>는 사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의제를 보이긴 했지만, 유병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종교단체인 구원파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책임주체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KBS>와 <채널A>가 8년여 전 드러낸 세월호 사고 보도 관행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사회적 재난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예컨대 사고 당시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예고된 인재’라는 식의 상투적인 사후확신 편향 보도를 하거나, 사고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추기는 정파적 보도에 치중하거나, 사고의 구조적 원인규명보다 책임자 처벌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재난사고에 대한 진단, 평가, 관리,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언론의 이런 주변부적이고, 피상적인 보도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세월호 침몰사고나 이태원 압사사고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재난사고는 막을 수 없다.

한편 이 연구는 <KBS>와 <채널A> 간의 의제 구성을 서로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수용자 의제를 밝혀보지는 못했다. 방송 미디어 의제와 함께 수용자 의제 조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들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면, 방송-수용자 간의 상호 의제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오래 지나 수용자 의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언론 보도와 게시판 또는 댓글을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월호 사고의 경우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 정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주를 이루어 합리적인 토론이나 의견 제시를 통한 의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재난이슈를 선정해 키워드 의제설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미디어와 수용자 의제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초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점도 한계점이다. 사고 발생 초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시계열적인 키워드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세월호 이슈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재난사고이다. 분석기간을 늘릴 경우 보도 의제와 속성의 연결 구조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 매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방송과 신문,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비교해 키워드와 네트워크 의제 속성을 확장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References

- Anzur, T. (2000). How to talk to the media: Televised coverage of public health issues in a disaster.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15*(4), 70-72.
- Baek, S. G., & Lee, K. A. (2011). Media coverage patterns of the sinking of 'Cheonan warship' and their ideological implications: A semiotic study on the media coverage through Baek's semiotic network analysis and discursive structure analysis. *Locality & Communication, 15*(1), 93-135.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uturoiu, R., Stefanita, O., & Corbu, N. (2017). The refugee crisis from the media to the public agenda. In A. Taranu (Ed.), *Quality of democracy in the new political area* (pp. 20-29). Bologna, Italy: Filodiritto.
- Corbu, N., & Hosu, O. (2017). The key words agenda: New avenues for agenda setting research. *Romani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s, 19*(3), 7-15.
- Fowler, R. (2013).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New York, NY: Routledge.
- Guo, L. (2016). A theoretical explication of the network agenda setting model: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L. Guo & M. E. McCombs (Eds.), *The power of information networks: New directions for agenda setting* (pp. 3-18). New York, NY: Routledge.
- Guo, L., & McCombs, M. (2011, August). *Toward the third level of agenda setting theory: A network agenda setting model*. Paper presented at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St. Louis, MO.
- Guo, L., & McCombs, M. (2016). *The power of information networks: New directions for agenda setting*. New York, NY: Routledge.
- Guo, L., & Vargo, C. (2015). The power of message networks: A big-data analysis of the network agenda setting model and issue ownership.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8*(5), 557-576.
- Guo, L., Vu, H. T., & McCombs, M. (2012). An expanded perspective on agenda-setting effects: Exploring the third level of agenda setting. *Revista de Comunicaci3n, 11*(1), 51-68.
- Hwang, Y. N., Jeon, M. H., & Yoo, J. W. (2016). Examining the trends of reporting characteristics in media coverage of disaster: A network and content analysis of the Sewol ferry sinking. *Crisisonomy, 12*(3), 1-15.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Agenda-setting and priming in a television ag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mada, T., & Kawai, S. (1989). An algorithm for drawing general undirected graphs. *Information Processing Letters*, 31, 7-15.
- Kang, H. J. (2012).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spaper headlines: Focused on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47-365.
- Kaplan, S. (1973). Cognitive maps in perception and thought. In R. M. Downs & D. Stea (Eds.), *Image and environment: Cognitive mapping and spacial behavior* (pp. 63-78). Chicago: Aldine.
- Kaplan, S. (2005, August). Seeing the light: Cognitive frames and firm response to the fiber-optic revolution. *Proceedings of Academy of Management*, 1, H1-H6.
- Khang, M., Lee, D. H., & Kim, Y. (2020). Parental perceptions of surviving sibling grief responses to an adolescent's violent and sudden death by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1(3), 454-474.
- Kim, M. Y. (2007). The textlinguistics study on TV news headlines. *Textlinguistics*, 23(23), 95-127.
- Kim, Y. H. (2011). *Social network analysis*. Seoul: Parkyoungsa.
- Kim, Y. W., Ham, S. K., & Kim, Y. J. (2017). Media discourse analyse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e methodological integration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newspaper big dat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7-38.
- Kim, Y., Lee, D. H., & Jeon, H. J. (2022).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bereaved parent's changes in life experience after the 2014 Sewol Ferry sinking.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5(3), 520-553.
- Kiousis, S. (2003). Job approval and favorability: The impact of media attention to the Monica Lewinsky scandal on public opinion of president Bill Clint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6(4), 435-451.
- Kwon, S. H., Shin, T. B., & Lee, W. S. (2014). *Broadcasters' disaster reporting forms and improvements: A comparative study on Sewol Ferry accident reporting structure between public broadcasting <KBS> and general broadcasters*. Seoul: <KBS> Research Report.
- Lee, D. H., Khang, M., Shin, J., Lee, H. J., & Brown, J. A. (2020). Life experience of bereaved parents after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0(4), 515-543.
- Lee, J. H., & Lee, S. K. (2016). The crisis of democracy and sensational partisan journalism : Focusing on political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7, 9-35.

- Lee, S. S. (2012).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Seoul: Nonhyungbook.
- Lee, W. S. (2006). Study on gatekeeping in selecting process of people in the news :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2, 295-332.
- Lee, W. S., & Choi, M. I. (2020). Language and semantic structure of the crime news headline : Through the analysis of semantic networks for each crime type reported on the portal site 'Nav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367-398.
- Lischka, J. A. (2016). *Economic news, sentiment, and behavior: How economic and business news affects the economy*. Zurich, Switzerland: SpringerVS.
- McCombs, M. (2005). A look at agenda-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ism Studies*, 6(4), 543-557.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cCombs, M. E., Shaw, D. L., & Weaver, D. H. (2014). New directions in agenda-setting theory and research.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7(6), 781-802.
- McKee, R. (2014). Breaking news: Sign language interpreters on television during natural disasters. *Interpreting*, 16(1), 107-130.
- Park, C. S., & Kaye, B. K. (2022). Public broadcasting is not much different: Public and commercial broadcasters' coverage of minimum wage in South Korea. *Journalism Practice*, 16(8), 1795-1809.
- Park, G. M., & Kim, G. J. (2014).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market and quality of news content: A comparison analysi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706-722.
- Park, H. W., & Leydesdorff, L. (2004). Understanding the KrKwic: A computer program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Park, K. M., Jang, D. H., & Doh, S. (2021). Dynamic nature of agenda and priming effects of media on public opinion formation: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ssue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2(2), 343-378.
- Perea, M., & Rosa, E. (2002). The effects of associative and semantic priming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Psychological Research*, 66(3), 180-194.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 Scheufele, D. A.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297-316.
- Shaw, D. L., McCombs, M., Weaver, D. H., & Hamm, B. J. (1999). Individuals, groups, and agenda melding: A theory of social disso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1), 2-24.
- Shaw, E. F. (1977). The agenda-setting hypothesis reconsidered: Interpersonal factors. *Gazette (Leiden, Netherlands)*, 23(4), 230-240.
- Sowa, J. F.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Reading, MA: Addison-Wesley.
- Tanaka, T. (2012). NHK's disaster coverage: A valued role of public service media. Retrieved from <https://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664.7006&rep=rep1&type=pdf>
- Vu, H. T., Guo, L., & McCombs, M. E. (2014). Exploring “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 A network agenda-setting stud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1(4), 669-686.
- Yoo, S. J. (2018). Research on the composition and diversity changes of the main news programs' new topic at the initial introduction of general programming cable channe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0), 53-64.

최초 투고일 2022년 0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30일

부록

- 강현직 (2012). 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뉴스 영향변인·편집자의 역할 지향성과 전문 직업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권 8호, 347-365.
- 권상희·신태범·이완수 (2014). 방송사의 재난 보도형태와 개선점: 공영방송 KBS와 일반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 보도구성 비교 연구. (KBS 연구보고서).
- 김민영 (2007). TV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23권 23호, 95-127.
- 김영욱·함승경·김영지 (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3호, 7-38.
- 김용학 (2011).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박기묵·김광재 (2014).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와 뉴스 콘텐츠 품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12호, 706-722.
- 박한우·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권 5호, 1377-1388.
- 백선거·이금아 (2011).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뉴스기사들에 대한 백선거의 기호네트워크분석(SNA)과 담론구조분석(DSA)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5권 1호, 93-135.
- 유수정 (2018). 종편 출범 초기의 지상파와 종편 메인뉴스의 주제 구성 및 다양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0호, 53-64.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완수 (2006).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2호, 295-332.
- 이완수·최명일 (2020). 범죄뉴스 헤드라인 언어와 의미구성: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보도된 범죄 유형별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367-398.
- 이정훈·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9-35.
- 황유나·전미현·유재웅 (2016). 재난위기보도의 시계열·매체별 보도 특성: 세월호 사건에 대한 네트워크, 내용분석 적용. <한국위기관리논집>, 12권 3호, 1-15.

재난사고에 대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간 의제 비교 <KBS>와 <채널A>의 세월호 보도 키워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키워드와 네트워크 의제설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공영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와 민영 상업방송사인 <채널A>가 구성한 세월호 재난사고 의제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네트워크 프레이밍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고책임 주체(해양경찰, 대통령, 선장, 유병언)에 따라 동원된 속성 의제를 비교 분석했다. 키워드 의제설정 측면에서 <KBS>는 수색, 사고, 구조 등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 사고수습이나 희생자 수색과 관련된 의제에 집중한 반면에, <채널A>는 유병언, 구원, 시신, 실종자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정종교 단체와의 연관성을 의제화했다. 네트워크 프레이밍의 경우 <KBS>는 구조, 실종자, 사고, 수색, 잠수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제를 연결한데 비해, <채널A>는 세월호를 중심으로 참사, 수색, 구조에 대한 의제 1그룹을, 유병언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구원파, 청해진해운, 소환에 대한 의제 2그룹을,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실종자, 박근혜, 유가족, 눈물에 대한 의제 3그룹으로 구분됐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프레이밍의 측면에서는 해양경찰과 선장에 대해서는 <KBS>와 <채널A>가 유사한 키워드를 통해 프레이밍을 한 반면에, 대통령과 유병언에 대해서는 두 채널이 차별적으로 속성 프레이밍을 했다. 해양경찰에 대해서는 두 채널 모두 승객구조와 수사활동의 주체라는 점, 선장에 대해서는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비난의 대상으로 귀인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프레이밍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KBS>는 국민 안전과 위로의 주체자로, <채널A>는 세월호 사고의 책임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주체로 프레이밍했다. 유병언과 관련해서는 <KBS>는 수사대상으로 프레이밍한 반면에, <채널A>는 유병언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과 종교집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프레이밍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매체가 보도한 세월호 사고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의제설정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핵심어 : 방송 매체, 세월호 사고보도, 키워드 의제설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네트워크 프레이밍